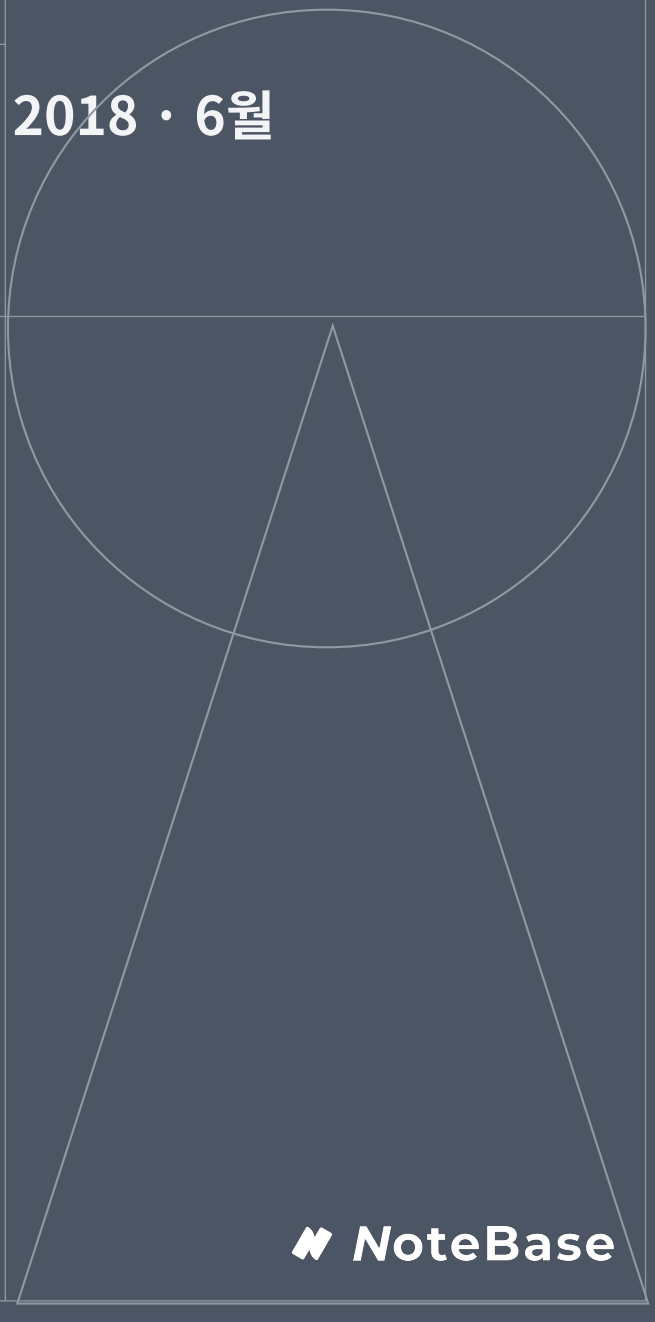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6월

문 1.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 등이 있다.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ㄷ. 'ㅁ'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순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구분으로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맞대어 내는 자음이다. 현대 한국어의 대표 양순음은 ㅂ, ㅃ, ㅍ, ㅁ이다.
조음 위치인 양순음과 조음 방법인 비음은 서로 다른 분류 축이다. 따라서 ㅁ은 비음이면서 동시에 양순음이다.
현대 한국어에는 양순 파열음은 있으나 양순 마찰음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ㅁ이 포함되므로 ㄱ은 옳다. 그러나 양순음이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골고루 발달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은 파열음과 비음이 중심이며 양순 마찰음은 없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② X: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은 양순음에 양순 마찰음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점이 틀렸고, ㄷ은 'ㅁ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ㅁ은 비음이면서 동시에 양순음이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③ O: ㄱ과 ㄹ은 모두 옳다. ㄱ은 양순음의 예로 ㅂ, ㅃ, ㅍ, ㅁ을 든 설명이고, ㄹ은 양순음이 두 입술이 닿아 만들어진다는 조음 위치의 공통점을 설명한 것이다.
④ X: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양순음은 두 입술이 닿는 자음이라는 점에서 ㄹ은 옳다. 그러나 ㄴ의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은 틀리다. 따라서 'ㄴ, ㄹ'이 아니라 'ㄱ, ㄹ'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한 축으로 섞으면 ㅁ을 '비음이므로 양순음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기 쉽다. 또 양순음에 ㅂ, ㅃ, ㅍ이 많다는 이유로 마찰음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ㄴ에 넘어가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음 문제는 먼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분리해 본다. 양순음인지 묻는다면 두 입술이 닿는가를 확인하고, ㅂ·ㅃ·ㅍ·ㅁ처럼 실제 양순 자음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양순음은 두 입술 소리인 ㅂ·ㅃ·ㅍ·ㅁ이고, ㅁ은 비음이면서 동시에 양순음이다.

NoteBase

문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얼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업고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아치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 추임새, ㉡: 소리, ㉢: 발림, ㉣: 아니리
② ㉠: 너름새, ㉡: 더늠, ㉢: 발림, ㉣: 아니리
③ ㉠: 너름새, ㉡: 더늠, ㉢: 아니리, ㉣: 발림
④ ㉠: 추임새, ㉡: 소리, ㉢: 아니리, ㉣: 발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판소리의 용어인 추임새, 소리, 아니리, 발림, 너름새, 더늠을 장면의 성격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추임새: 고수나 청중이 흥을 돋우려고 넣는 짧은 감탄사이다. 키워드는 "얼씨구", "좋다"이다.
소리: 광대가 곡조를 붙여 부르는 노래 대목이다. 키워드는 노래이다.
아니리: 광대가 말로 사설을 풀어 가는 부분이다. 키워드는 대사, 말 주고받기이다.
발림: 소리나 사설의 내용을 몸짓으로 드러내는 동작이다. 키워드는 몸짓, 흉내이다.
너름새: 소리, 아니리, 발림을 섞어 여러 장면을 실감 나게 보이는 종합적 연기이다.
더늠: 명창이 특히 뛰어나게 다듬어 자기 장기로 만든 소리 대목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ㄷ의 "발림"과 ㄹ의 "아니리"이다.
ㄱ의 "얼씨구"는 고수나 청중이 넣는 추임새이므로 맞다.
그러나 ㄷ의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은 말로 이어 가는 부분이어서 발림이 아니라 아니리이다.
ㄹ의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은 아니리가 아니라 발림이다.

2번 X
틀린 표현은 ㄱ의 "너름새", ㄴ의 "더늠", ㄷ의 "발림", ㄹ의 "아니리"이다.
ㄱ의 "얼씨구"는 종합적 연기인 너름새가 아니라 추임새이다.
ㄴ의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명창의 특장 대목인 더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래 대목인 소리이다.
ㄷ은 아니리, ㄹ은 발림으로 고쳐야 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ㄱ의 "너름새"와 ㄴ의 "더늠"이다.
ㄱ의 "얼씨구"는 너름새가 아니라 추임새이다.
ㄴ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더늠이 아니라 소리이다.
ㄷ의 "아니리"와 ㄹ의 "발림"은 맞지만, 앞의 두 항목이 틀려서 오답이다.

4번 O
ㄱ의 "얼씨구"는 추임새, ㄴ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소리, ㄷ의 "말을 주고받는" 장면은 아니리, ㄹ의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은 발림이므로 모두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너름새와 더늠을 넓은 의미의 판소리 용어로만 외우면 함정에 걸리기 쉽다. 이 문항은 "노래냐, 말이냐, 몸짓이냐, 추어주는 소리냐"를 묻는 기본 구분이 핵심인데, 2번과 3번은 ㄱ을 너름새로, ㄴ을 더늠으로 바꿔 놓아 용어의 범위를 흐리게 만든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소리 용어 문제는 장면의 표현 방식부터 나누면 된다. "얼씨구"처럼 추어주는 말이면 추임새, 곡조를 붙여 부르면 소리, 말로 주고받으면 아니리, 몸짓으로 보이면 발림이다. 더늠은 특정 명창의 장기 대목이고, 너름새는 소리·아니리·발림이 어우러진 종합 연기라는 점으로 따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얼씨구는 추임새, 노래는 소리, 말은 아니리, 몸짓은 발림이다. 더늠은 명창의 장기 대목, 너름새는 종합 연기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부사어가 일반 부사어인지 필수 부사어인지에 따라 문장 내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선택적 성분이어서 생략해도 기본 문장 구조가 유지된다.
필수 부사어는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어서 빠지면 문장이 매우 어색해지거나 의미가 크게 비게 된다.
이 문항에서는 '굴다'가 어떤 태도나 상태로 행동함을 드러내는 말을 요구하므로 ②의 부사어가 다른 셋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까맣게'는 '탔다'의 결과 상태를 덧붙이는 일반 부사어이다. '고기가 탔다'로 줄여도 기본 문장 성립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예가 아니다. 정답 선지로 고치면 ②가 된다.

② O
'비겁하게'는 '굴다'가 요구하는 태도 성분을 채워 주는 필수 부사어이다. '굴지 마라'라고만 하면 무엇처럼 행동하지 말라는지가 비어 의미가 크게 약해진다. 따라서 ②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르다.

③ X
'격렬하게'는 싸우는 양상을 덧붙이는 일반 부사어이다. '두 사람은 싸웠다'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①, ④와 같은 부류이다. 정답 선지로 고치면 ②가 된다.

④ X
'시원하게'는 마시는 방식이나 상태를 덧붙이는 일반 부사어이다. '이 술은 마셔야 맛있다'로도 기본 구조가 유지되므로 ①, ③과 같은 부류이다. 정답 선지로 고치면 ②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게' 꼴로 끝나는 말이라는 겉모양만 보면 네 선지가 모두 같은 역할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②는 서술어 '굴다'의 뜻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고, ①·③·④는 없어도 기본 문장이 성립하는 일반 부사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사어를 뺀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면 판단이 쉬워진다. 부사어를 빼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남으면 일반 부사어이고, 빼면 의미가 크게 비거나 서술어의 뜻이 미완성으로 남으면 필수 부사어이다.

암기 포인트

'굴다'는 태도를 밝혀 주는 부사어를 요구하고, '타다·싸우다·마시다'는 부사어 없이도 기본 문장이 선다.

NoteBase

문 4. 표준 발음법 상 'ㄴ'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준 발음법에서 ㄴ과 ㄹ이 맞닿을 때 유음화로 [ㄹ]이 되는 경우와, 다만 규정으로 ㄹ이 [ㄴ]으로 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음화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예: 난로[날로],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다만 일부 한자어 결합에서는 반대로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예: 의견란[의견난], 상견례[상견녜],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받침 ㄱ, ㅂ 뒤의 ㄹ이 [ㄴ]이 되면 앞의 ㄱ, ㅂ도 비음화되어 각각 [ㅇ], [ㅁ]으로 바뀔 수 있다. 예: 백리[뱅니], 협력[혐녁].

선지별 해설

① O. 상견례[상견녜], 의견란[의견난], 백리[뱅니]는 모두 ㄹ이 [ㄴ]으로 실현되는 묶음이다. 백리는 ㄹ이 [ㄴ]이 된 뒤 앞의 ㄱ이 비음화되어 [뱅니]가 된다.
② X. 임진란[임진난], 공권력[공꿘녁]은 ㄹ이 [ㄴ]으로 발음되지만, 광한루는 [광할루]로 ㄴ이 [ㄹ]로 바뀐다. 틀린 표현은 광한루를 같은 부류로 묶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광한루는 유음화 사례이다.
③ X.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ㄴ이 [ㄹ]로 바뀌지만, 입원료[이붠뇨]와 협력[혐녁]은 ㄹ이 [ㄴ]으로 발음된다. 틀린 표현은 세 낱말의 발음 변동이 같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대관령은 유음화, 입원료와 협력은 ㄹ의 [ㄴ] 발음 사례이다.
④ X. 동원령[동원녕], 구근류[구근뉴]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지만, 난로는 [날로]로 ㄴ이 [ㄹ]로 바뀐다. 틀린 표현은 난로를 같은 묶음에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난로는 유음화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ㄴ+ㄹ이 보이면 항상 [ㄹㄹ]로만 처리하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의견란, 상견례, 입원료, 구근류처럼 한자어 결합에서는 다만 규정으로 뒤의 ㄹ이 [ㄴ]으로 나는 예가 따로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ㄴ과 ㄹ이 맞닿은 말을 보면 먼저 유음화 여부를 본다. 그다음 의견란·상견례류처럼 표준 발음법의 다만 규정에 들어가는 한자어 예인지 확인하면 묶음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난로·광한루·대관령은 [ㄹ] 쪽, 의견란·상견례·입원료·구근류·백리·협력은 [ㄴ] 쪽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5.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나)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① (가) - 짓다, 푸다, 눕다
② (나) - 깨닫다, 춥다, 씻다
③ (다) - 푸르다, 하다, 노르다
④ (라) - 좋다, 파랗다, 부옇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불규칙 활용을 어간 일부 탈락, 어간 일부 교체, 어미 교체, 어간·어미 동시 변화로 나누어 예시에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어간의 일부 탈락은 활용할 때 어간의 자음이나 모음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이다. 예로 '짓다→지어'의 ㅅ 탈락, '푸다→퍼'의 우 탈락이 있다.
(나) 어간의 일부 교체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경우이다. 예로 '깨닫다→깨달아'의 ㄷ→ㄹ, '줍다→주워'의 ㅂ→우가 있다.
(다) 어미 교체는 어간은 그대로 두고 어미가 다른 꼴로 바뀌는 경우이다. 예로 '푸르다→푸르러', '하다→하여/해', '노르다→노르러'가 있다.
(라) 어간과 어미의 동시 변화는 어간 변화와 어미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이다. 예로 '파랗다→파래', '부옇다→부예'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짓다'와 '푸다'는 (가)의 예가 맞지만 '눕다'가 틀렸다. '눕다→누워'는 어간의 ㅂ이 우로 바뀌는 ㅂ 불규칙이므로 어간 일부 탈락이 아니라 어간 일부 교체에 해당한다.
② X: '깨닫다'와 '줍다'는 (나)의 예가 맞지만 '씻다'가 틀렸다. '씻다→씻어'는 어간이 바뀌지 않는 규칙 활용이므로 어간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가 아니다. 이 자리에는 '걷다'처럼 ㄷ 불규칙 용언이 오는 편이 맞다.
③ O: '푸르다', '하다', '노르다'는 모두 어미가 달라지는 예이다. '푸르다→푸르러', '하다→하여/해', '노르다→노르러'처럼 어간은 유지되고 어미가 '-어'가 아니라 '-러', '-여' 계열로 바뀐다.
④ X: '파랗다'와 '부옇다'는 (라)의 예가 맞지만 '좋다'가 틀렸다. '좋다→좋아'는 규칙 활용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지 않는다. (라)의 대표 예는 '파랗다→파래', '부옇다→부예'처럼 ㅎ이 탈락하면서 어미까지 함께 바뀌는 말이다.

오답 포인트

'형태가 달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불규칙으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눕다'는 탈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ㅂ이 우로 바뀌는 교체이고, '좋다'는 ㅎ이 있는 형용사라는 점 때문에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칙 활용이다. '씻다'처럼 활용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규칙 활용도 불규칙처럼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용언을 직접 활용형으로 바꾸어 본 뒤, 어간 일부가 사라지면 탈락, 다른 소리로 바뀌면 교체, 어간은 그대로인데 '-아/-어'가 '-여/-러'로 바뀌면 어미 교체, 어간 변화와 어미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 동시 변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짓다·푸다는 탈락, 깨닫다·줍다는 교체, 하다·푸르다는 어미 변화, 파랗다·부옇다는 어간·어미 동시 변화이다.

NoteBase

문 6. 준말의 표기가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되었다 - 됐다
ㄴ. 쓰이어 - 쓰여
ㄷ. 뜨이어 - 띄어
ㄹ. 적지 않은 - 적잖은
ㅁ.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준말 표기 규정('-어/-었-' 축약, '-이어' 축약, '-지 않-/-하지 않-' 축약)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되었다→됐다'는 '-었-'이 앞말과 어울려 준 형태이다(한글 맞춤법 제35항).
'쓰이어→쓰여', '뜨이어→띄어'는 'ㅣ' 뒤의 '-어'가 줄어든 형태이다(제38항).
'적지 않은→적잖은',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는 '-지 않-'이 '-잖-'으로, '-하지 않-'이 '-찮-'으로 준 형태이다(제39항).

선지별 해설

공식 정답은 2번(ㄴ, ㄷ)이다.

ㄴ. 쓰이어→쓰여: 'ㅣ' 뒤의 '-어'가 줄어든 바른 준말이다(제38항). 옳다.
ㄷ. 뜨이어→띄어: 같은 제38항에 따라 '뜨이어'가 '띄어'로 준 바른 표기이다. 옳다.

①(ㄱ, ㄴ), ③(ㄴ, ㄹ), ④(ㄴ, ㅁ)는 공식 정답 기준에서 오답으로 처리된다.

다만 ㄱ(되었다→됐다, 제35항), ㄹ(적지 않은→적잖은, 제39항), ㅁ(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제39항)도 모두 규범상 바른 준말이다. 결국 보기 ㄱ~ㅁ이 전부 옳은 준말에 해당하여 단일 정답이 성립하기 어려운 복수정답 성격의 문항이며, 공식 발표 정답은 2번으로 처리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준말을 모음 축약(‘-어/-었-’, ‘-이어’)만으로 좁게 기억하면 ㄹ·ㅁ의 ‘-지 않-→-잖-’, ‘-하지 않-→-찮-’ 축약을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은 보기 다섯 개가 모두 바른 준말이라 정답 판정에 논란이 있는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준말 문제는 먼저 ‘되어→돼, 되었다→됐다’처럼 ‘-어/-었-’ 축약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쓰이어/뜨이어’처럼 ‘-이어’ 축약을 본다. 마지막으로 ‘적잖은, 변변찮다’처럼 ‘-지 않-/-하지 않-’이 굳은 준말인지 점검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됐다, 쓰여, 띄어, 적잖은, 변변찮다는 모두 규범상 바른 준말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하였다.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천상병의 '귀천'이 보여 주는 죽음 인식과 자연 이미지의 기능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죽음 인식: 이 작품에서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인 하늘로 돌아가는 귀환이다. 결정 차이축은 상실이냐 회귀냐이며, 핵심 키워드는 '하늘', '돌아가리라', '소풍'이다.
이미지 기능: 새벽빛, 이슬, 노을빛은 영원불변한 세계를 상징하기보다 맑고 아름답지만 잠시 스쳐 가는 삶의 순간과 평온한 귀환의 정서를 드러낸다. 결정 차이축은 영원성이냐 덧없음이냐이며, 핵심 키워드는 순수, 덧없음, 평온이다.
표현 방식: 같은 구절의 반복과 담담한 독백체를 통해 달관한 태도를 형성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반복은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의 귀환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② O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화자는 삶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으로 보고 스스로 '돌아가리라'고 말함으로써 삶과 죽음을 초월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③ X
틀린 부분은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이다. 새벽빛, 이슬, 노을빛은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를 보여 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자연물이다. 올바르게는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해 삶의 순수함과 덧없음, 그리고 죽음을 평온한 귀환으로 받아들이는 정서를 형상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시어가 평이하고 반복 구조가 단순하여 담담한 고백의 어조가 두드러진다.

오답 포인트

3번은 '하늘'이라는 시어 때문에 초월 세계의 영원성을 떠올리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는 영원불변보다 순간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에 가깝고, 죽음도 장엄한 초월보다 평온한 귀환으로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죽음을 다룬 시는 먼저 화자가 죽음을 단절로 보는지 귀환으로 보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어서 자연 이미지가 영원성과 불변을 뜻하는지, 아니면 순간성·순수·덧없음을 드러내는지 구분하면 선지의 옳고 그름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귀천'은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하늘로의 귀환으로 보고, 자연 이미지는 영원성보다 순수와 덧없음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8.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예술의 본성을 외형적 속성이 아니라 해석과 맥락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현대 예술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예술작품이 반드시 일정한 모양이나 재료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상 사물이나 버려진 대상도 예술적 의미와 해석의 맥락에 들어오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예술의 종말'은 예술의 몰락이 아니라 예술을 역사적 양식의 발전으로만 설명하던 방식의 종결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이다. 제시문은 간단한 손도구, 상품 상자, 쓰레기 더미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예술의 지위와 의미는 외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예술의 지위와 의미는 외형에 더해 그것에 부여된 해석과 예술적 맥락까지 함께 보아야 파악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이다. 제시문은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거나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이 없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작품의 창작과 비평은 단일한 본질적 목표를 전제하기보다 어떤 의미 부여와 맥락 속에서 예술로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비관적 관점'과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다. 제시문의 '예술의 종말'은 예술이 무력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가면서 전통적인 예술사 서사가 끝났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예술의 종말은 몰락의 선언이 아니라 예술 이해 방식의 전환을 가리킨다.
4번: O. 제시문은 손도구, 상품 상자, 쓰레기 더미, 도살된 동물까지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직접 만든 대상이 아니어도 예술적 의미와 맥락이 부여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이해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많이 틀리는 지점은 '예술의 종말'을 예술의 쇠퇴나 위기로 읽는 데 있다. 이 표현은 가치 하락이 아니라 예술을 규정하던 고정된 기준과 역사 서사의 종결을 뜻한다. 또한 1번처럼 예술을 눈에 보이는 미적 속성으로만 판단하면 현대 예술관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일상 사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외형보다 해석, 의미 부여, 제도적 맥락을 먼저 본다.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곧바로 쇠퇴로 연결하지 말고 무엇이 끝났는지, 즉 대상 자체인지 이해 방식인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대 예술관은 '무엇처럼 보이느냐'보다 '어떤 의미와 맥락으로 읽히느냐'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쩍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① 형상(形象)
② 반경(半徑)
③ 사유(思惟)
④ 지경(至境)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맥 속 밑줄 낱말의 뜻을 파악하여 같은 소리의 한자어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상은 사물의 모양이나 드러난 모습을 뜻한다.
반경은 본래 원의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이고, 비유적으로는 어떤 활동이나 사고가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사유는 대상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작용을 뜻한다.
지경은 어떤 영역, 경계, 형편의 단계라는 뜻으로 쓰인다.
반면 至境은 매우 높은 경지나 극치에 가까운 상태를 뜻하므로 일반적인 영역이나 단계의 뜻과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형상(形象)은 눈에 보이거나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양과 모습을 뜻한다. 제시문의 '상상적 형상'은 상상 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라는 뜻이므로 알맞다.
② O: 반경(半徑)은 원의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라는 본뜻에서 나아가 범위라는 비유적 뜻으로도 쓰인다. '사고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사고의 범위가 커진다는 말이므로 알맞다.
③ O: 사유(思惟)는 생각하여 이치를 따지고 헤아리는 작용을 뜻한다. '사유의 역동성'은 생각의 움직임과 활력을 말하므로 알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至境'이다. 至境은 매우 높은 경지나 극치라는 뜻이다. 제시문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의 지경은 새로운 영역이나 단계가 펼쳐진다는 뜻이므로, 매우 높은 경지를 뜻하는 至境과는 맞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지경'과 '경지'를 뒤섞으면 쉽게 틀린다. 至境은 최고 수준의 경지에 가까운 뜻이고, 제시문의 지경은 어떤 영역이나 형편의 단계라는 뜻이므로 문맥의 방향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 대응 문제는 음이 같아도 문맥에서 먼저 뜻을 잡아야 한다. 밑줄 낱말이 모양, 범위, 생각, 영역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한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형상은 모습, 반경은 범위, 사유는 생각, 지경은 영역이다. 至境은 최고 경지라는 별도 뜻이다.

NoteBase

문 10. '의존명사-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만큼, 대로, 만, 뿐'이 문맥에 따라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또는 어미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띄어 쓰는 형식 명사이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말이다.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활용되며 연결이나 서법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할 만큼'의 '만큼'은 관형어 '할'의 수식을 받으므로 의존명사이다. 그러나 '먹으리만큼'의 '만큼'은 체언 뒤에 붙은 조사가 아니라 어미 '-(으)리만큼'의 일부이다. 틀린 표현은 '조사'이다. 올바르게는 이 짝을 '의존명사-어미'로 보아야 한다.
2번: O. '들어오는 대로'의 '대로'는 관형어 '들어오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다. '멋대로'의 '대로'는 체언 '멋' 뒤에 붙어 '멋에 따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3번: O. '10년 만에'의 '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너만'의 '만'은 다른 대상을 배제하는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4번: O. '할 뿐이다'의 '뿐'은 관형어 '할'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다. '다섯뿐이다'의 '뿐'은 체언 '다섯' 뒤에 붙어 '오직 그 수만'의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오답 포인트

띄어쓰기만 보고 의존명사와 조사를 기계적으로 나누면 1번의 '먹으리만큼'처럼 어미를 조사로 오인하기 쉽다. 품사를 판정할 때는 앞말이 체언인지, 관형어인지, 용언 활용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형어가 앞말을 꾸미면 의존명사 가능성을 먼저 본다. 체언에 바로 붙으면 조사 가능성을 본다. 용언 어간이나 활용형에 붙어 한 덩어리로 굳어 있으면 어미인지 함께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관형어가 꾸미면 의존명사, 체언에 붙으면 조사, 용언 활용형에 붙으면 어미일 수 있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나) 동풍이 건듣부니 믉결이 고이닌다
돋ᄃᆞ라라 돋ᄃᆞ라라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쟈스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압뫼히 디나가고 뒫뫼히 나아온다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②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④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의 연군·우국 정서와 (나)의 어촌 풍경 묘사 방식이라는 작품 성격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어촌에 몸을 두고 있으면서도 임금과 조정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다.
(나)는 반복적 소리와 이동 장면을 활용해 배가 나아가는 어촌의 흥취를 역동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모두 어부가 지은 노래'이다. 두 작품은 모두 어촌 생활이나 어부의 모습을 소재로 삼지만, 실제 어부의 창작으로 보는 작품은 아니다.
② X: 틀린 부분은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이다. (나)는 어촌의 흥취를 즐기지만, (가)는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이 없으랴'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와 조정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만족 상태가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이다. (가)는 장안과 북궐을 떠올리며 임금과 나라를 잊지 못하는 우국의식을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어촌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이다.
④ O: (나)는 '돈도라라 둥도라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같은 반복적 소리와 '압뫼히 디나가고 뒷뫼히 나아온다' 같은 시각적 이동 장면을 통해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답 포인트

(가)에 어주와 어촌 공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한가한 강호가사로만 보면 ②, ③에 흔들리기 쉽다. 이 작품은 공간은 어촌이지만 정서는 연군과 우국에 놓여 있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 비교 문제에서는 소재가 아니라 화자의 정서를 먼저 본다. 어촌, 강호, 자연이 나타나도 임금·북궐·시름 같은 표현이 있으면 우국 또는 연군의 정서를 의심할 수 있고, 반복적 소리와 이동 묘사가 두드러지면 역동적 풍경 묘사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가)는 어촌 속 우국, (나)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어촌의 흥취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못하다'가 행위의 불가능을 나타내는지, 상태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행위 불가능의 '못하다':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키워드: 할 수 없음.
상태 미달의 '못하다': 어떤 성질이나 정도가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키워드: 충분하지 않음.

선지별 해설

1번 X: '음식이 너무 매워'라는 사정 때문에 먹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밑줄 친 말은 행위의 불가능을 나타낸다. 이 선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②, ④와 같은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2번 X: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잇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역시 어떤 상황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선지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3번 O: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는 기대한 정도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못했다'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나머지 셋과 의미가 가장 다르다.
4번 X: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갈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사정 때문에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선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①, ②와 같은 의미로 고쳐 판단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도 겉모양은 '못했다'라서 ①, ②, ④와 같아 보이지만, ③은 행동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똑똑함의 정도'를 말한다. '매워서', '눈물 때문에', '바빠서'처럼 이유가 붙어 있으면 행위 불가능일 가능성이 크고, '똑똑하지'처럼 상태 서술과 붙어 있으면 정도 미달의 뜻이 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못하다' 앞말이 행동인지 상태인지 본다. 행동과 붙어 있고 뒤에 이유나 상황이 제시되면 '할 수 없음'으로 판단한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과 붙어 있으면 '기준에 못 미침'의 뜻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먹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는 할 수 없음이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기대에 못 미침이다.

NoteBase

문 13.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③ 신문로 Sinmunno, 율곡로 Yulgongro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음운 변화 반영과 고유 명사 종류별 표기 방식, 특히 도로명 -ro와 일반 고유 명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문·광화문·한라산·백두산처럼 문화재명과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적는다.
신문로처럼 음운 변화가 반영된 고유 지명은 발음대로 Sinmunno처럼 적는다.
도로명 ○○로는 고유 부분과 로를 구분해 선릉로 → Seolleung-ro처럼 적으므로 율곡로는 Yulgok-ro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립문은 [동님문]의 발음이 반영되어 Dongnimmun으로 적는다. 광화문은 문화재명으로 붙임표 없이 Gwanghwamun으로 적으므로 맞는 표기이다.

② O
선릉은 [설릉]이므로 Seolleung, 정릉은 [정능]이므로 Jeongneung으로 적는다. 둘 다 자음 동화가 반영된 올바른 표기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율곡로 Yulgongro이다. 도로명 ○○로에서 로는 앞말과 붙임표로 이어 적고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율곡로는 Yulgok-ro로 적는다. 제시된 Yulgongro는 곡을 비음화한 gong으로 잘못 적고 붙임표까지 빠뜨린 표기이다. 반면 신문로 Sinmunno는 [신문노]의 발음을 반영한 표기로 맞다.

④ O
한라산은 [할라산]이 반영되어 Hallasan, 백두산은 Baekdusan으로 적는다.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이어 적으므로 제시된 표기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로로 끝나는 말은 모두 도로명이라고 보고 -ro를 붙이거나, 반대로 모두 발음대로 적는다고 섞어 쓰기 쉽다. 이 문항은 신문로처럼 굳어진 지명 표기와 율곡로 같은 도로명 표기를 구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산·문·릉 같은 일반 고유 명사인지, 도로명 ○○로인지부터 구분한다. 일반 고유 명사는 발음 변화를 반영해 붙여 적고, 도로명은 고유 부분 뒤에 붙임표를 두어 -ro로 적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문로는 Sinmunno, 도로명 율곡로는 Yulgok-ro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잘못한 사람이 <u>되려</u> 큰소리를 친다.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u>맨날</u> 놀기만 하니?
③ 어제 일을 벌써 <u>깡그리</u> 잊어버렸다.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u>억수로</u> 흘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준어로 인정된 말과 비표준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비슷하게 들리는 형태 가운데 사전에 오른 표준형이 무엇인지 판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이 문항은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를 사전 기준으로 가르는 문제이다.
되레는 '도리어'의 뜻으로 쓰는 표준어이고, 되려는 그 자리에 흔히 쓰이지만 표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맨날은 '매일같이 계속하여서'의 뜻으로 쓰는 표준어이다.
깡그리는 '하나도 남김없이'의 뜻으로 쓰는 표준어이다.
억수는 표준어 명사이고, 문장 속 억수로는 억수에 조사 '-로'가 붙은 형태이므로 비표준어로 볼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되려'가 비표준형이므로 정답이 된다. 이 문맥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되레 큰소리를 친다.' 또는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맨날'은 표준어이다. 예전에는 '만날'만 표준어로 보았지만, 현재는 '맨날'도 표준어이므로 비표준어라는 판단이 틀리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맨날은 표준어이다.'가 된다.
③ X: '깡그리'는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따라서 비표준어라는 판단이 틀리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깡그리는 표준어이다.'가 된다.
④ X: 밑줄 친 '억수로'는 표준 명사 '억수'에 조사 '-로'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비표준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 틀린 판단을 고치면 '억수로는 이 문맥에서 비표준어로 보지 않는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맨날'처럼 입말 느낌이 강한 단어를 무조건 비표준어로 처리하면 틀리기 쉽다. 반대로 ①은 발음과 쓰임이 익숙해서 넘어가기 쉽지만, 표준형은 '되레'이고 '되려'는 비표준형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④도 한 단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표준 명사 '억수'에 조사 '-로'가 결합한 형태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먼저 표준형이 따로 굳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독립된 단어인지 체언과 조사 결합인지를 가른다. 사전에 오른 표준형과 단순한 발음 습관형을 구별하면 이런 문항을 빠르게 풀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되레만 표준이고 되려는 비표준이다. 맨날, 깡그리, 억수로는 이 문항에서 표준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② 할아버지께 여쭈워 보시면 됩니다.

③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라.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워서 눈물만 나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언의 활용형이 표준어 규정과 복수 표준어에 맞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럽다`가 붙은 용언은 관형사형에서 대체로 `-스러운`으로 활용된다. `여쭈다/여쭙다`, `서럽다/섧다`처럼 둘 다 표준어인 쌍은 각 원형에 따라 활용형도 함께 인정된다. `붇다`는 활용할 때 `불-` 꼴이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밑줄 친 `곤혹스런`은 옳지 않다. `곤혹스럽다`의 활용형이므로 관형사형은 `곤혹스러운`이 된다. 틀린 표현은 `곤혹스런`이고, 올바르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이다.
② O. `여쭈워`는 옳다. `여쭈다`와 `여쭙다`가 모두 표준어이므로, `여쭙다`를 원형으로 보면 활용형 `여쭈워`가 성립한다.
③ O. `불기`는 옳다. 라면이 퍼지거나 부풀다는 뜻의 원형은 `붇다`이고, 이 말은 활용할 때 `불-` 형태가 나타나므로 `라면이 불기 전에`가 맞다.
④ O. `설워서`는 옳다. `섧다`와 `서럽다`가 모두 표준어이며, `섧다`는 `설워`로 활용하므로 `내 처지가 너무 설워서`는 바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는 `곤혹스런`, `자랑스런`처럼 `-스런` 꼴을 자주 써서 ①을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쉽다. 반대로 ②의 `여쭈워`는 낯설어서 틀렸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문항은 실제 쓰임의 익숙함이 아니라 표준어 원형과 활용 규칙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활용형 문제는 먼저 원형을 찾은 뒤, 복수 표준어인지와 불규칙 활용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스럽다`는 관형사형에서 `-스러운`으로 적는다는 점을 먼저 대입하면 ①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스럽다`는 `-스러운`, `여쭈다/여쭙다`와 `서럽다/섧다`는 복수 표준어, `붇다`는 활용하면 `불-`이 된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① ㉠: 문제, ㉡: 합의
② ㉠: 갈등, ㉡: 성과
③ ㉠: 갈등, ㉡: 의제
④ ㉠: 의제, ㉡: 문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 공동체의 문제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정치적 결정의 의제로 만드는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갈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가 충돌하는 상태이다. 민주주의는 이를 억압하지 않고 정치 안으로 끌어들인다.
문제: 공동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공적 사안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의제: 정치적 결정과 토론의 대상으로 공식화된 문제이다.
합의: 경쟁과 토론의 결과로 형성된 다수 의사 또는 동의이다.
성과: 권위주의 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취약함을 보완하려고 내세우는 가시적 업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문제'로 보면 출발점이 잘못된다. 정당이 먼저 정치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이다.
- ㄴ을 '합의'로 본 것도 틀리다. 정당의 역할은 갈등을 정치적 결정 이전의 의제로 만드는 데 있고, 합의는 그 뒤에 형성되는 결과이다.
- 틀린 표현은 '문제 / 합의'이다. 올바르게는 '갈등 / 의제'이다.

② X
- ㄱ의 '갈등'은 맞지만 ㄴ의 '성과'가 틀리다. 성과는 윗문단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정당성 취약함을 보완하려고 내세운 가시적 업적을 가리킨다.
- 정당이 정치적 결정을 위해 만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의제이다.
- 틀린 표현은 '성과'이다. 올바르게는 '의제'이다.

③ O
-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고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ㄱ은 '갈등'이 맞다.
- 그렇게 끌어온 갈등을 공동체 전체가 다루어야 할 문제로 바꾸어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ㄴ은 '의제'가 맞다.

④ X
- '의제 / 문제'는 과정의 순서를 거꾸로 놓은 조합이다. 갈등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된 뒤 정치적 결정의 의제가 된다.
- 틀린 표현은 '의제 / 문제'의 순서이다. 올바르게는 '갈등 / 의제'이다.

오답 포인트

'문제'와 '의제'를 같은 말처럼 보면 ④에 끌리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먼저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된 뒤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의제가 된다는 단계 구분이 핵심이다. 또 '성과'는 권위주의 정부 문맥에서만 쓰인 말이므로 정당의 역할과 연결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주주의 관련 글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본다. 억압의 대상이면 권위주의 쪽이고,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 토론과 결정의 대상으로 만들면 민주주의 쪽이다. 그때 순서는 '갈등 → 공동의 문제 → 정치적 의제 → 합의'로 잡으면 빈칸을 안정적으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민주주의는 갈등을 숨기지 않고 의제로 만든다.

NoteBase

문 17.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격 조사, 보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접속 조사의 기능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격 조사: 문장의 주어가 되는 말에 붙어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의 '에서'도 주어 구실을 하면 주격 조사로 본다.
보조사: 어떤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은/는'은 대조나 화제 제시의 뜻을 더하는 대표적 보조사이다.
보격 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대표적으로 '이/가'가 쓰인다.
부사격 조사: 처소, 출발점, 비교 대상 같은 부사어 자격을 주는 조사이다. '에서', '과'가 문맥에 따라 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접속 조사: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 주는 조사이다. '와/과'가 대표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집에서 가져왔다'의 '에서'는 출발점을 나타내므로 부사격 조사이다.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에서'는 단체인 '우리 학교'를 문장의 주어처럼 세우므로 주격 조사로 볼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라는 표현이다. 여기의 '는'은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화제를 드러내거나 대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올바르게는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에서도 보조사이고, '일을 빨리는 한다'에서도 보조사이다.

③ O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가'는 주어 '아이'를 표시하므로 주격 조사이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가'는 '아니다' 앞의 '종이'를 보어로 만들어 주므로 보격 조사이다.

④ O
'눈과 같이 하얗다'의 '과'는 비교의 대상인 '눈'을 이끄므로 부사격 조사이다. '책과 연필이 있다'의 '과'는 '책'과 '연필'을 이어 주므로 접속 조사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은/는'이 주어 자리에도 자주 나오므로 주격 조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는 '은/는'을 기본적으로 보조사로 처리하고, 주어 표시 기능은 '이/가'와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는 형태만 보지 말고 문장 안에서 맡는 기능을 먼저 본다. 주어를 직접 표시하면 주격 조사, 특별한 뜻을 덧붙이면 보조사, '아니다/되다' 앞의 보어를 만들면 보격 조사, 체언과 체언을 잇으면 접속 조사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은/는은 보조사, 이/가는 주격 조사와 보격 조사, 에서·과는 문맥에 따라 격조사와 접속 조사로 갈린다.

NoteBase

문 18.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미봉책(彌縫策)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비슷한 임시봉합형 표현과, 상황에 맞춘 대처를 뜻하는 표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한쪽 문제를 막으려고 다른 쪽을 희생하는 임시방편을 뜻한다.
미봉책·임시방편·언 발에 오줌 누기는 모두 근본 해결이 아닌 임시 대응이라는 점에서 가깝다.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일이라는 점이 중심 의미이므로, 임시봉합이라는 부정적 뜻과는 거리가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미봉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로 봉합하는 대책을 뜻하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가깝다. 정답으로 보면 틀리며, 바르게는 유의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판단해야 한다.
2번: O. 임기응변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그때그때 알맞게 대처하는 일을 뜻한다. 핵심이 '상황 대응'이지 '임시봉합'이 아니므로 의미상 거리가 가장 멀다.
3번: X. 임시방편은 그때그때 둘러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을 뜻하므로 원 표현과 매우 가깝다. 정답으로 보면 틀리며, 바르게는 같은 계열의 임시 대책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4번: X.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잠깐만 효험이 있고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원 표현과 통한다. 정답으로 보면 틀리며, 바르게는 눈앞만 모면하는 임시처방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1번, 3번, 4번은 모두 '임시로 때운다'는 부정적 의미를 공유한다. 2번도 '그때그때'라는 말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임기응변은 상황 적응 자체를 뜻하는 중립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들을 '근본 해결 없는 임시봉합' 묶음과 '상황에 맞춘 대처' 묶음으로 먼저 나눈다. 전자에 들어가면 유의어이고, 후자에 들어가면 의미상 거리가 먼 선택지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아랫돌·미봉책·임시방편·언 발은 모두 임시처방, 임기응변만 상황대응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콧 얼면 여흘도 됴ᄒᆞ니 여흘도 됴ᄒᆞ니.

ㄴ.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ㄷ. 출하리 ᄉᆡ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ᄃᆡ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 내 님 조ᄎᆞ려 하노라.

ㄹ.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ᄎᆞ노ᄆᆡ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ᄆᆡ라.
무심ᄒᆞᆫ ᄃᆞᆯ빗만 싯고 빈 ᄇᆡ 저어 오노라.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ㄴ - ㄹ - ㄷ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전 시가 작품을 갈래와 작가, 시대에 따라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구지가 - 가야 건국 신화와 관련된 고대 가요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2. ㄱ 만전춘별사 - 고려 속요에 해당하므로 고대 가요 다음에 놓인다.
3. ㄹ 추강에 밤이 드니 - 월산대군의 시조로 조선 전기 작품이다.
4. ㄷ 사미인곡 - 정철의 가사로 조선 중기 작품이다.

왜 이 순서: 고대 가요에서 고려 속요로, 다시 조선 전기 시조와 조선 중기 가사로 내려가야 시대 흐름이 맞는다.

NoteBase

①

X이다. ㄱ 만전춘별사를 ㄴ 구지가보다 앞세운 점이 틀렸다. 구지가는 고대 가요이고 만전춘별사는 고려 속요이므로 고대가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ㄱ-ㄴ'이다. 올바르게는 'ㄴ-ㄱ'이다.

②

X이다. 앞의 'ㄴ-ㄱ'까지는 맞지만 뒤의 'ㄷ-ㄹ'이 틀렸다. 사미인곡은 정철의 가사로 조선 중기 작품이고, 추강에 밤이 드니는 월산대군의 시조로 조선 전기 작품이다. 틀린 표현은 'ㄷ-ㄹ'이다. 올바르게는 'ㄹ-ㄷ'이다.

③

X이다. ㄱ 만전춘별사를 ㄴ 구지가보다 앞세운 점이 먼저 틀렸고, 뒤의 'ㄹ-ㄷ'만 맞다. 구지가는 가야 건국 신화에 실린 고대 가요이므로 고려 속요인 만전춘별사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ㄱ-ㄴ'이다. 올바르게는 'ㄴ-ㄱ'이다.

④

O이다. ㄴ 구지가, ㄱ 만전춘별사, ㄹ 추강에 밤이 드니, ㄷ 사미인곡의 배열은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중기의 흐름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조선 시대 작품끼리만 묶어서 외우면 ㄹ과 ㄷ의 선후가 흔들린다. 월산대군의 시조는 조선 전기이고, 정철의 가사는 조선 중기라는 갈래와 작가를 함께 잡아야 순서가 고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 배열 문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을 먼저 잡고, 남은 작품은 갈래와 작가를 연결해 고려 속요, 조선 전기 시조, 조선 중기 가사처럼 큰 시대축으로 정리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구지가-고대, 만전춘별사-고려, 월산대군 시조-조선 전기, 정철 가사-조선 중기이다.

NoteBase

문 20.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관형사와 부사의 수식 대상, 그리고 부사의 조사 결합 가능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만 쓰이며 체언만 수식하는 품사이다.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지만, 일부는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고 일부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 수식언이다. 따라서 관형사의 기본 기능을 묻는 이 진술은 옳다.

② O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놓여 뒤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 '돌다리', '유리창'처럼 명사가 명사를 앞에서 한정하는 예가 이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없다'이다. 부사는 예외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오직 너', '바로 나', '겨우 셋'처럼 부사가 대명사나 수사를 꾸미는 일이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가 된다.

④ O
부사는 조사와 완전히 단절된 품사가 아니다. 격조사는 붙지 않지만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어서 '잘도 한다', '벌써부터'와 같은 예가 가능하므로 이 진술은 옳다.

오답 포인트

관형사가 체언만 수식한다는 성질을 부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③에 속기 쉽다. 출제자는 '부사는 용언만 꾸민다'는 단순화된 암기를 흔들기 위해 체언 수식 부사와 보조사 결합 예외를 함께 물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식언 문제는 먼저 수식 대상을 본다. 체언만 꾸미면 관형사의 성질이고, 용언 중심이면서 예외적으로 체언도 꾸미거나 보조사 결합이 가능하면 부사의 성질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관형사=체언만, 부사=용언 중심이지만 체언 수식과 보조사 결합의 예외가 있다.

NoteBase